

##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섭취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과 연령의 영향

강 종 현<sup>†</sup> · 고 범 석

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대구보건대학 호텔조리음료계열

### The Effects of Attitude towards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Perceived Convenience, and Age on Fish Consumption Behavior

Jong-Heon Kang<sup>†</sup> and Beom-Seok Ko

Dept. of Cooking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Jeonnam 540-742, Korea  
Dept. of Hotel Culinary Arts & Wine · Coffee, Daegu Health College, Daegu 702-722,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fish consumption behavior, attitude towards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perceived convenience, and age. A total of 235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measure the causal effects of the constructs. The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were an excellent model fit for the data. The influence of age on attitude towards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and perceived conven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expected, attitude towards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and perceived conveni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ish consumption behavior. Moreover, age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fish consumption behavior through health involvement. Age also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fish consumption behavior through perceived convenience. By developing and testing conceptual models that integrate the relationships among age, psychological variables, and fish consumption behavior, this study may offe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se complex relationships can improve the managerial diagnoses of problems and the opportunities for different marketing strategies, including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communications.

**Key words :** Fish consumption behavior, attitude, involvement, conven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causal effect.

#### 서 론

현재 건강한 식생활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이며,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들 중 하나가 생선을 섭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몇 십 년 동안 계속하여 정부, 마케팅 협회, 소매업자, 개인 해산물 회사 할 것 없이 생선과 해산물 섭취를 권장해 왔다(Olsen SO 2003). 육식이 많은 여러 유럽 국가들에선 일주일에 두 번 생선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Verbeke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건강식으로서의 생선 섭취 권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선 섭취량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생선 소비가 소비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음식 소비 패턴, 소비자들의 개인 건강 상태, 그리고 많은 태도적 차원들의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Trondsen *et al* 2003). 다시 말하면 음식 소비 행동이란 것은 음식의 물리적 특성(풍미, 질감, 냄새), 개인적 특징(개성, 선호도, 태도, 지각도, 지식), 또는 환경적 특성(이용 가능성, 계절, 상황, 문화) 등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Olsen SO 2001).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인의 음식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음식 소비 행동을 횡단적(cross-sectional) 시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연구들이든 생애과정(life course)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던 연구들이든 상관없이, 개인들의 음식 소비 행동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될 수 있다(Olsen SO 2003). 하나는 연령, 성별, 인종, 소득 수준, 직업, 가격 수준, 공급 등의 사회경제적 또는 인구 통계적 변수들로 음식의 선택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계량경제적 연구였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연령이 음식 인지도나 태도(Rappoport *et al* 1993), 또는 음식 소비(Nu *et al* 1996)의 중요 설명 변수라는 것을 제시한 연구, 해산물 소비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Jong-Heon Kang, Tel : +82-61-750-3694, Fax : +82-61-750-3608, E-mail : astckjh@hanmail.net

행동에 연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Myrland *et al* 2000). 성별, 연령과 교육 수준의 인구통계적 변수들이 건강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Hearthy *et al* 2007).

또, 다른 분류의 연구는 신념, 태도, 관심/동기, 사회적 규범, 지식 등의 심리적 변수들이 음식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태도,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 통제가 생선 소비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Verbeke & Vackier 2005, Mahon *et al* 2006), 또는 태도, 과거 행동과 습관이 해산물 소비 의도에 미치는 영향(Honkanen *et al* 2005)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생선 및 해산물 소비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Leek *et al* 2000, Letarte *et al* 1997)과 소비자 몰입의 영향(Juhl & Poulsen 2000), 바닷가재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편의성의 영향(Kinnucan *et al* 1993)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외부 변수로 연령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는 연구 모형의 간명성을 해치거나 이론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심리적 변수가 음식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에 배제되어 왔다(Olsen SO 2003). 따라서 연령별 심리적 변수의 차이와 연령별 음식 소비 행동의 차이와 같이 인구통계적 변수가 심리적 변수와 음식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음식 소비 행동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과 같이 심리적 변수가 음식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는 있었지만, 인구통계적 변수와 음식 소비 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변수의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인구통계적 변수, 심리적 변수와 음식 소비 행동 간 인과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마케터들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선 소비 행동, 섭취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과 연령의 인과 관계 경로들로 구성된 구조방정식 모형을 개발하여 연령이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과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이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령이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을 통해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선 섭취 태도, 건강 몰입, 편의성 지각도와 소비 행동 빈도에 관한 내용과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250부의 설문지를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자는 10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설문 조사 시기는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다.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250명이었으나 15부의 설문지들이 부정확하게 응답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35부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명목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섭취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 생선 소비 행동과 연령을 알아내기 위한 부분이었다.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는 생선에 대해 호의적인(flavor) 정도, 선호하는(liking) 정도, 만족하는(satisfaction) 정도, 또는 맛있는(good)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적인 경향을 말한다(Olsen SO 2003). 이 개념은 선행 연구(Olsen SO 2003)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질문들은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저녁식사로 생선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다', '저녁식사로 먹는 생선류 음식의 맛이 좋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건강 몰입은 생선 소비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요인으로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견해나 사항, 또는 건강식(healthy eating)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Gempesaw *et al* 1995, Olsen SO 2001, Olsen SO 2003). 이 개념은 선행 연구(Roininen *et al* 1999, Olsen SO 2003)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질문들은 '건강을 위해선 음식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강을 위해선 건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건강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의 것들(운동, 보양식 섭취 등)을 하고 있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편의성은 생선을 구매하고 조리하여 먹고, 식후에 먹고 난 것을 치우는데 필요한 시간의 충분한 정도를 말한다(Furst *et al* 1996, Olsen SO 2003). 이 개념은 Ajzen J(1991)의 기대-가치 모형에서 사용되었던 지각된 행동 통제의 측정 항목을 참고하여 개발되어 선행 연구(Olsen SO 2003)에서 사용된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질문은 '해산물류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난 후에 뒷걸리,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로 인해 자주 요리해 먹지 못한

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생선 소비 행동은 생선 음식 섭취 빈도를 말한다. 이 개념은 선행 연구(Olsen SO 2003)에서 사용된 질문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저녁식사로 해산물로 음식을 먹은 횟수'가 거의 매일이면 7번, 1주일에 3~4회이면 6번, 1주일에 1~2회이면 5번, 1달에 1~2회이면 4번, 1년에 3~6회이면 3번, 1년에 1~2회이면 2번, 그리고 전혀 먹지 않았다면 1번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난 2주일(14일) 동안 집에서 저녁식사로 해산물류 음식을 먹은 횟수'가 14회 이상이면 5번, 10~13회이면 4번, 5~9회이면 3번, 1~4회이면 2번, 그리고 전혀 먹지 않았다면 1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연령은 선행 연구(Olsen SO 2003)에서 사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50세 이상이면 4번, 40~49세이면 3번, 30~39세이면 2번, 그리고 20~29세이면 1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3.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Olsen SO(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모형을 참고하여 측정 모형과 이론 모형을 통합시킨 Fig. 1과 같은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측정 모형은 3개 내생 개념들과 측정 도구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y = \lambda y \cdot \eta + \epsilon_y$ 와 같은 수리모형으로 설정되었다.

이론 모형은 1개 외생 개념과 3개 내생 개념들 간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eta = \Gamma \cdot \xi + B \cdot \eta + \zeta$ 와 같은 수리 모형으로 설정되었다. 이론 모형은 7개 경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경로는 연령과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연령과 건강 몰입, 연령과 지각된 편의성, 연령과 생선 소비 행동,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와 생선 소비 행동, 건강 몰입과 생선 소비 행동, 그리고 지각된 편의성과 생선 소비 행동의 경로들이다.

4. 분석 방법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빈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모형에 사용될 구성 개념들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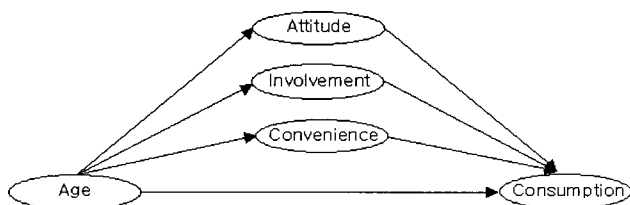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과 신뢰성은 Olsen SO(200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방법과 같이 확인 요인 분석, 평균 분산 추출값(AVE), 혼합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와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빈도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확인 요인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구성 개념들 간 인과관계 분석은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는 남성(48.5%)이 여성(51.5%)보다 적었다. 결혼 여부에서 기혼자(51.9%)가 미혼자(48.1%)보다 많았다.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40.4%)가 대학 이상(59.6%)보다 적었다. 소득 수준에서 200만원 미만(60.9%)이 200만원 이상(39.1%)보다 많았다.

2. 구성 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는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 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확인 요인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카이제곱의 값이 59.906이었고, 유의확률이  $p < 0.001$ 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기초 적합지수(GFI), 비교 적합지수(CFI), 상대 비중심 지수(RNI)와 증분 적합지수(NNFI)의 추정치들은 각각 0.950, 0.963, 0.963, 0.947로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공근(RMSEA)은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확인 요인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

Table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14	48.5
	Female	121	51.5
Married status	Married	122	51.9
	Single	113	48.1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95	40.4
	College or more	140	59.6
Income (Monthly)	₩ 1,999,999 or less	143	60.9
	₩ 2,000,000 ~ ₩ 2,999,999	59	25.1
	₩ 3,000,000 ~ ₩ 3,999,999	23	9.8
	₩ 4,000,000 ~ ₩ 4,999,999	6	2.6
	₩ 5,000,000 or more	4	1.7
Total	235	100	

할만한 수준이었다.

측정 모형에서 개별 경로들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들은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측정 모형에서 개념들은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척도를 갖지 않는다. 즉, 개념들의 측정 단위와 원점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개념들 간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정 단위를 적당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는 하나의 측정 도구와 외생 개념 간 경로계수와 하나의 측정 도구와 내생 요인 간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켰다.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와 4개 측정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736부터 0.876까지로 나타났다. 건강 몰입에 대한 태도와 4개 측정 도구들 간 경로계수는 0.574부터 0.731까지로 나타났다. 지각된 편의성과 1개 측정도구 간 경로계수는 1.0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구성 개념들과 측정 도구들 간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p < 0.05$ ) 때문에 집중 타당성이 입증되었다(Olsen SO 2003, Yuksel & Yuksel 2007). 또한, Table 3에서 제시된 구성 개념의 평균 분산 추출값 제공근은 상관관계 계수들보다 높게 나타났기 판별 타당성도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Rai *et al* 2002, Olsen SO 2003). 구성 개념들의 혼합 신뢰도는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가 0.878이었고, 그리고 건강 몰입이 0.724로 기준(0.6)보다 높게 나타났다(Olsen SO 2003).

구성 개념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된 결과는 Table 3에서 제시되었다.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는 건강 몰입과의 상관관계에서 0.271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는 지각된 편의성과의 상관관계에서 0.024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 몰입도 지각된 편의성과의 상관관계에서 0.030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들은 Table 4에서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카이제곱의 값이 86.983이었고, 유의확률이  $p < 0.001$ 로 나타났다. 기초 적합 지수, 비교 적합 지수, 상대 비중심 지수와 증분 적합지수는 각각 0.960, 0.965, 0.965와 0.949로 나타나 기준(0.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사 평균제곱 오차 제공근(RMSEA)은 0.061로 나타나 기준(0.0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Olsen SO(2003)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조방정식

**Table 3. Correlation and AVE of construct**

	Attitude	Involvement	Convenience
Attitude	0.803		
Involvement	0.271(3.558)*	0.631	
Convenience	0.024(0.352)	0.030(0.391)	-

\*  $p < 0.05$ ,  $\sqrt{AVE}$  on the diagonal.

**Table 2. Standardiz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efficients and construct reliability**

Constructs and indicators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i>t</i>	Composite reliability	Variance extracted
Attitude			0.878	0.644
Being wise	0.736	12.543*		
Feeling satisfied	0.811	14.377*		
Pleasant feeling	0.876	16.109*		
Taste good	0.781	13.624*		
Involvement			0.724	0.399
Importance of variation in diet	0.598	8.491*		
Importance of healthy food	0.731	10.487*		
Involvement in healthy issues	0.611	8.703*		
Involvement in healthy living	0.574	8.118*		
Convenience			-	-
Time to clean up and supplementary work	1.00	21.633*		

\*  $p < 0.05$ .

**Table 4. Goodness-of-fit test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t measures	CFA results	Model
$\chi^2$	56.906	86.983
Degree of freedom	25	45
Probability(p)	0.000	0.000
GFI	0.950	0.960
RMSEA	0.072	0.061
CFI	0.963	0.965
RNI	0.963	0.965
NNFI	0.947	0.949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론 모형에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들은 Table 5에서 제시되었다. 연령과 생선 소비 행동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개념들 간 경로들에서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04였고,  $t$ 값은 2.03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Olsen SO(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생선을 더 맛있게 생각하고, 식사로 생선을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식사로 생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 몰입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128이었고,  $t$ 값은 3.07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고연령층이 저연령층보다 건강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연구들(Kearney *et al* 1998, Roininen *et al* 1999, Olsen SO 2003)을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각된 편의성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221이었고,  $t$ 값은 -3.4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Olsen SO (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요리를 해 먹고 난 후에 뒷정리,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로 인하여 생선 음식을 자주 요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선 소비 행동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76이었고,  $t$ 값은 -1.2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05$ ).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다소 저연령층에서 생선 소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생선이 특정 연령층에서만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Table 5. Path coefficients among constructs**

Path	Coefficient	$t$	Error	$R^2$
Attitude			0.550	0.019
Attitude ←Age	0.104	2.037*		
Involvement			0.245	0.063
Involvement ←Age	0.128	3.077*		
Convenience			0.951	0.049
Convenience ←Age	-0.221	-3.423*		
Consumption			0.598	0.243
Consumption ←Age	-0.076	-1.223		
Consumption ←Attitude	0.438	5.069*		
Consumption ←Involvement	0.371	2.498*		
Consumption ←Convenience	-0.225	-3.793*		
Consumption ←Attitude ←Age	0.046	1.923		
Consumption ←Involvement ←Age	0.048	2.004*		
Consumption ←Convenience ←Age	0.050	2.591*		

\*  $p < 0.05$ .

있었다.

생선 소비 행동에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438이었고,  $t$ 값은 5.06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Olsen SO(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생선을 더 맛있게 생각하고, 식사로 생선을 먹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식사로 생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클수록 생선의 소비도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선 소비 행동에 건강 몰입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371이었고,  $t$ 값은 2.49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Olsen SO(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생선의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선 소비 행동에 지각된 편의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225이었고,  $t$ 값은 -3.79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 결과는 편의성이 음식 선택(Stephoe *et al* 1995), 바닷가재의 구매 의사 결정(Kinnucan *et al* 1993)과 해산물 소비 행동(Olsen SO 200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요리를 해 먹고 난 후에 뒷정리,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부담스럽게 생각할수록 생선의 소비도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생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44이었고,  $t$ 값은 1.92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 0.05$ ).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연령과 생선 소비 행동의 관계에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의 간접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건강 몰입을 통하여 생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48이었고,  $t$ 값은 2.004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거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 고연령층에서 생선의 소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지각된 편의성을 통하여 생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0.050이었고,  $t$ 값은 2.59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5$ ).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요리를 해 먹고 난 후에 뒷정리, 설거지 등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고연령층에서 생선의 소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과의 경로계수와 잔차의 합으로 계산되는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1.9%였다. 연령과의 경로계수와 잔차의 합으로 계산되는 건강 몰입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6.3%였다. 연령과의 경로계수와 잔차의 합으로 계산되는 지각된 편의성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9%였다. 연령과의 경로계수,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와 경로계수, 건강 몰입과의 경로계수, 지각된 편의성과의 경로계수, 그리고 잔차의 합으로 계산되는 생선 소비 행동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4.3%였다.

구성 개념들 간 인과 관계에 대해 분석한 Table 6에 의하면, 간접 효과는 생선 소비 행동에 연령이 미치는 경로(0.161)에서만 발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 경로의 직접 효과가 너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총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 효과는 생선 소비 행동에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0.003), 건강 몰입(0.005)과 지각된 편의성(-0.004)이 미치는 경로들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의사 효과는 이 경로들의 공변량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생선 소비 행동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구성 개념들 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Standardized total effects

Path	Covariate	Total	Direct	Indirect	Spurious
Attitude←Age	0.138	0.138	0.138	0	0
Involvement←Age	0.251	0.251	0.251	0	0
Convenience←Age	-0.221	-0.221	-0.221	0	0
Consumption←Age	0.075	0.075	-0.086	0.161(3.613)*	0
Consumption←Attitude	0.372	0.369	0.369	0	0.003
Consumption←Involvement	0.219	0.214	0.214	0	0.005
Consumption←Convenience	-0.257	-0.253	-0.253	0	-0.004

\*  $p < 0.05$ . ( )  $t$  value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과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의 영향, 연령이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를 통해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령이 건강 몰입을 통해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령이 지각된 편의성을 통해 생선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고, 235명의 응답자들로부터 생선 소비 행동,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과 연령에 관한 설문문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서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구성 개념들 간 인과관계는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령은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 지각된 편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선 소비 행동은 생선 섭취에 대한 태도, 건강 몰입과 지각된 편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은 생선 소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건강 몰입을 통하여 생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지각된 편의성을 통하여서도 생선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연령과 같은 외부 변수와 태도, 몰입과 편의성 등의 심리적 변수가 생선 소비 행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음식 소비 행동을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과 같은 외부 변수, 심리적 변수와 행동적 변수 간 인과 관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변수들 간 인과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는 마케터들로 하여금 상품 개발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의 마케팅 전략 구사를 위한 관리적 문제점과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은 연령, 심리적 변수와 행동 변수 간 인과관계의 한 예로서 변수들의 선정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을 전남지역 주민들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음식의 종류를 생선 음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부 변수를 연령으로 한정하지 말고 교육 수준,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변수들로 확대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규범, 도덕적 규범, 지식, 이용 가능성, 자원 등의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들이 음식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선 연령, 교육 수준 등의 외부

변수들과 소비 행동 간의 매개변수들로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문 헌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Furst T, Connors M, Bisogni CA, Sobal J, Falk W (1996)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 247-266.
- Gempesaw CM, Bacon JR, Wessels, CR, Manalo A (1995) Consumer perceptions of aquaculture products. *American J Agriculture Economics* 77: 1306-1312.
- Hearty AP, McCarthy SN, Kearney JM, Gibney MJ (2007)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healthy eating and dietary behaviour,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Appetite* 48: 1-11.
- Honkanen P, Olsen SO, Verplanken B (2005) Intention to consume seafood-the importance of habit. *Appetite* 45: 161-168.
- Juhl HJ, Poulsen CS (2000) Antecedents and effects of consumer involvement in fish as a product group. *Appetite* 34: 261-267.
- Kearney M, Kelly A, Gibney MJ (1998) Attitudes toward and beliefs about nutrition and health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J Nutrition Education* 30: 139-148.
- Kinnucan HW, Nelson RG, Hiariy J (1993) U.S. preferences for fish and seafood: an evoked set analysis. *Marine Resource Economics* 8: 273-291.
- Leek S, Maddock S, Foxall G (2000) Situation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British Food J* 102: 18-39.
- Letarte A, Dube L, Troche V (1997)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ffective and cognitive origins of food likes and dislikes. *Appetite* 28: 115-129.
- Mahon D, Cowan C, McCarthy M (2006) The role of attitudes, subjective norm, perceived control and habit in the consumption of ready meals and takeaways in Great Britai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7: 474-481.
- Myrland O, Trondsen T, Johnston RS, Lund E (2000) Determinants of seafood consumption in Norway: lifestyle, revealed preferences, and barriers to consump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1: 169-188.
- Nu CT, MacLeod P, Barthelemy J (1996) Effects of age and gender on adolescents' food habits and preferences. *Food*

- Quality and Preference* 7: 251-262.
- Olsen SO (2001) Consumer involvement in seafood as family meals in Norway: an application of the expectancy-value approach. *Appetite* 36: 173-186.
- Olsen SO (2003)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afood consumption: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4: 199-209.
- Rai A, Lang SS, Welker RB (2002) Assessing the validity of IS success models: an empirical test and theoretical analysi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3: 50-69.
- Rappoport L, Peters G, Downey R, McCann, T, Huff-Corzine L (1993)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food cognition. *Appetite* 20: 33-52.
- Roininen K, Lahteenmaki L, Tuorila H (1999) Quantification of consumer attitudes to health and hedonic characteristics of foods. *Appetite* 33: 71-88.
- Stephoe A, Pollard TM, Wardle J (199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25: 267-284.
- Trondsen T, Scholderer J, Lund E, Eggen AE (2003) Perceived barriers to consumption of fish among Norwegian women. *Appetite* 41: 301-314.
- Verbeke W, Vackier I (2005) Individual determinants of fish consumptio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etite* 44: 67-82.
- Verbeke W, Vermeir I, Brunso K (2007) Consumer evaluation of fish quality as basis for fish market segmenta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 651-661.
- Yuksel A, Yuksel F (2007) Shopping risk perceptions: Effects on tourists' emotions, satisfaction and expressed loyalty intentions. *Tourism Management* 28: 703-713.
- (2007년 3월 13일 접수, 2007년 4월 10일 채택)